

미 행정부, 미래 팬데믹 대비 대규모 투자 계획 공개

- 미국,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'아폴로 계획' 추진 -
- 우리도 미지의 질병(Disease X)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책 마련 필요 -

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



- 미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등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9월 3일 발표함. 과거 달 탐사를 위한 아폴로 작전에 준하는 이번 미국 팬데믹 예방 전략(American Pandemic Preparedness)은 별칭 아폴로 계획(Apollo Plan)으로 불림.
- 미 행정부는 10년 내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하게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.
- 계획 이행에 투입될 예산은 향후 7~10년 동안 총 653억 달러로 제안하였으며,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 부서(Mission Control Office)를 중심으로 계획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.
- 계획 초기 투입 비용은 150~200억 달러로 예상되며, 긴급 투자 분야는 백신·치료제 등 의약품 및 진단기기 개발, 감염병 모니터링 강화, 응급처치 개선, 보호장구 추가 등으로 알려짐.
- 세계보건기구(WHO)는 이미 2018년 2월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미지의 질병(Disease X)으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발표함.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.

한국 바이오의 가치를 알리고 미래를 그려라

〈참고자료〉

1. White House Unveils \$65 Billion Plan to Combat New Pandemics, Bloomberg, 2021.9.4
2. 미국 행정부 보고서(American Pandemic Preparedness: Transforming Our Capabilities), 2021.9
3. Prioritizing diseas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mergency contexts, WHO